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고위직공무원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북 고창군이 3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7명과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고위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성평등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이정은 강사(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에 방 전문가)는 조직의 관리자가 알아야 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을 사례 위주로 강의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세금 무료상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3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환경제농업대학 수료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개최했다.

부안군이 위촉한 박정희 마을세무사가 자경농민 양도에 간편요건 증여세, 취득세 등 꼭 농민들이 알아야 할 세법지식을 설명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세금고민을 상담하여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으로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영세 소상공인, 서민 납세자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국제, 지방세 관련 세금문제를 상담해주는 제도다.

하용권 재무과장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등으로 세금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펼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하는 세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회 방문 예산 확보 총력전

심덕섭 고창군수, 상임위·전북 소속 양당 예결위 위원들 찾아 현안 반영 건의

고창군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바빠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회를 방문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단계를 통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전라북도 소속의 양당 예결위 위원들을 면담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펼쳤다.



농해수위 위원이자 고창·정읍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을 면담하고 바로 이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이자 소위원회 위원인 한병도 의원을 만나 고창군 핵심사업과 주요 공모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고창 출신 국민의힘 예결위

원인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이용호 의원을 릴레이 면담하며 고창군 미반영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창군이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명사십리지구의 사구복원 및 안전한 해안경비를 위한 국민안심해안 100사업의 시범사업(150억원) 도입과 함께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덕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118억원), 고창 양고살재의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는 영산기맥 양고살재 생태축복원사업(50억원), 탐사르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30억원)을 비롯하여 하수도사업의 신설 및 계속사업 증액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심덕섭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1년 농사가 국회단계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 담겨있는 사업은 수시 모니터링 하고 정부에 담기지 못했지만 고창군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의 예결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소관 위원들을 수시로 면담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년도 낙낙한 국정살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기자

“농가 경영 부담 경감 큰 도움”

정읍시, 15일까지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가신청·접수

정읍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에 나선다.

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비용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기간 중 4개월 사용분에 대해 전년도 배정량 대비 3분의 1까지 1만 리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단가는 리터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업)인이다.

본인이 면세 유류 카드를 신청한 지역농협에서 면세 유류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5,249명 10억7천만원 신청분에 대해 지난 2일 지급을 완료했다.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가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싹쓸이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시적으로 농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어르신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가져

정읍시는 지난 2일 AI-Hi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ICT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AI-HiT 기반 건강관리 사업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원활한 기기 사용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어르신의 디지털 기기 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 참여 어르신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앱 설치와 실행, 삭제 등 스마트폰 기능 사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진작가와 사진 관리, 저장공간 관리, 유튜브 재생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실습함으로써 그동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해소했다.

특히 AI-Hi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대여받은 스마트기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참가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직접 다루며 활용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에 더 익숙해짐으로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단풍절정기,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 제공 '총력'

정읍시, 케이블카·셔틀버스 등 안전 점검 나서

정읍시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합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풍철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관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내장산 단풍의 절정이 오는 5일~8일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행락질서문화 정착과 관광객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점

검을 진행했다. 시는 내장산 내 케이블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이용객 안전 매뉴얼을 점검했다.

또 시설 관리 주체에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케이블카 운행에 대해 정기 점검, 안전 수칙 준수 등을 더욱 강화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내 셔틀버스 이용객

의 안전을 위해 탑승 안내와 출서기, 친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서행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힐링·케어·감동 관광도시로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행락질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읍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내장산, 최고 수령 단풍나무 자태 뽐내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에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3호로 지정된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면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내장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이 단풍나무는 내장사와 용굴 진입로

인 조선왕조실록갈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산비탈 아래에 자생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나무의 나이)은 약 200년으로 추정되고, 수고(높이)는 16.87m, 근원직경(밑동 둘레)은 1.13m, 흉고직경(가슴높이 둘레)은 0.94m이다.

너비는 동서 방향 20.32m, 남북 방향은 18.10m로 내장산의 단풍나무 중 가장 규모가 큰 노거수(老巨樹)다.

36°의 급경사지와 암석지(51~57%)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랜 세월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외형적으로 웅장한 수형을 이루고 있어 자연경관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 이동세탁차량 '뽐송이' 출범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는 3일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량 뽐송이 출범식을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뽐송이는 앞으로 관내 독거노인·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의 대형 빨랫감 등을 세탁해 각 가정 및 기관에 배달해주는 역할 및 자연재해 긴급 복구 시 이재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부안군자원봉사센터의 전담 세탁지원 차량이다.

3.5톤 화물차에 대형세탁기 4대가 장착된 이동식 세탁 차량은 부안군민을

위하여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 및 각 기관·단체는 서비스 제공 장소 선정 및 수혜자 모집 등 부안군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